

붓다

# 제 1 장 석가모니 부처님

## 제 1 절 위대한 생애

1. 히말라야 산의 남쪽 기슭을 흐르는 로히니 강가에 석가족의 수도 카필라가 있었다. 왕의 이름은 쏏도다나인데, 대대로 순수하고 반듯한 혈통을 이어온 자로서 튼튼하게 성을 쌓고 선정을 베푸니 백성은 기뻐하며 그를 따르고 있었다. 왕의 성은 고타마였다.

왕비 마야부인은 같은 석가족의 일족으로 고리야족이라 불리는 데바다하성의 공주이며 왕의 사촌 누이 동생이었다.

결혼 후, 오랫동안 자식을 얻지 못하여 20 몇 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밤 하얀 코끼리 한 마리가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태내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잉태하였다. 왕의 일족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한결같이 손꼽아 태자의 탄생을 기다렸는데 산달이 다가오자 왕비는 나라의 관습에 따라 친가로 돌아가다가 룸비니동산에서 휴식을 하였다. 때마침 봄별은 따뜻하여 아쇼카의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왕비는 오른손을 들어올려 그 가지를 꺾

으려 할 찰라에 태자를 낳았다. 온 세상이 기쁨에 휩싸여 그 모자를 경축하였다. 때는 마침 4월 8일이었다.

숫도다나왕의 기쁨은 이를 데 없어 일체의 원이 성취되었다는 뜻의 ‘śīdarta’라는 이름을 태자에게 지어 주었다.

2.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고 슬픔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자를 낳은 마야부인은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 태자는 마야부인의 누이동생인 마하프라자파티의 품에서 자라나게 되었다.

그 무렵 아시타라는 선인이 산 속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성근방에 떠도는 길상을 보고 “이 아이가 장성해서 집에 계속 머물면 세계를 통일하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며, 만일 출가하여 도를 닦으면 세상을 구하는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다.

왕이 이 예언을 듣고 처음에는 기뻐하였으나 점차로 혹시나 출가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게 되었다.

태자는 일곱 살 때부터 문무의 도를 배웠다. 어느 봄날에 태자는 부왕을 따라 전원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참석하였다. 그곳

석가모니 부처님

에서 농부들이 밭갈이 하는 광경을 보고 있을 때에 가래 끝에 갈려 나온 벌레를 새가 날아와서 쪼아먹는 것을 보고 “가없어 라!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 죽이는구나.”라고 중얼거리며 홀로 나무 그늘 밑에 앉아 깊은 사색에 빠져들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되어 어머니와 사별하였고 이제 또 살아 있는 것들이 서로 죽이는 광경을 보자 태자의 마음 속에는 벌써 인생의 고뇌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어린 나무에 새겨진 상처처럼 날로 성장하여 태자를 더욱 어두운 생각으로 몰고 갔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부왕은 크게 걱정하였고, 예전에 선인이 말했던 예언을 떠올리며 태자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여러모로 꾀를 내었다. 드디어 태자가 19 세가 되던 해, 태자의 외삼촌으로 데바다하성의 왕 수프라붓다의 딸 야쇼다라를 비로 맞이하여 혼례를 올려주었다.

3. 그 후 10 년간 태자는 춘계, 추계, 우계에 궁전에서 춤과 노래와 악기 소리에 휘감겨 즐거운 생활을 보냈으나, 그 쾌락 속에서도 늘 마음 속으로 깊이 사색하며 인생을 알아보려고 고

심하였다.

“궁전의 영화도 건강한 이 육체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이 젊음도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란 말인가. 사람은 병들고 언젠가는 늙는다. 죽음을 면할 수는 없다. 젊음도, 건강도, 산다는 것도 어떠한 의미를 갖는단 말인가.

인간이 살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구하는 것에는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과 바른 것을 구하는 두 가지가 있다.

잘못된 것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벗어나지 못한 채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바른 것을 구한다는 것은 이 잘못을 깨달아서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초월한 인간의 고뇌의 모든 것을 여윈 경지를 구하는 것이다. 지금의 나는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

4. 이와 같이 마음을 괴롭히며 지내는 사이에 세월은 흘러 태자의 나이가 29 세 되던 해, 아들 라후라가 태어나자 태자는

석가모니 부처님

드디어 출가의 결심을 했다. 태자는 마부 찬다카를 데리고 흰 말 칸타카에 올라타고서 정들었던 궁전을 떠났다. 그리하여 속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출가의 몸이 되었다.

이 때에 악마가 재빨리 태자에게 달라 붙었다. “궁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때를 기다리는 게 좋다. 이 세계는 전부 네 것이 되는 것이다.” 태자는 꾸짖었다. “악마여! 없어져라. 모든 지상의 것은 내가 구하는 바가 아니다.” 태자는 악마를 쫓아버리고 머리를 깎은 뒤에 발우를 손에 들고 결식을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태자는 처음에 바가바 선인을 찾아가서 그가 닦고 있는 고행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이어서 아라다 칼라마와 우드라카 라마푸트라를 찾아가 그들의 수행을 보고서 몸소 그것을 실행해 보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 깨달은 태자는 마가다국으로 가서 가야 마을 옆을 흐르는 나이란자나 강가의 우루빌바 숲 속에서 격렬한 고행을 했던 것이다.

5. 그것은 그야말로 무서운 고행이었다. 부처님 스스로가 “과거의 어떤 수행자도 현재의 어떠한 고행자도 또 미래의 어떤

한 출가자도 이 이상의 고행을 한 자는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세상에서 보기 드문 극심한 고행이었다.

그러나 이 고행도 태자가 구하는 것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태자는 6 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친 이 고행을 미련없이 던져 버렸다. 나이란자나 강에서 목욕하여 몸의 더러움을 씻어낸 뒤에 수자타라는 아가씨로부터 우유죽을 받아 마시고 건강을 회복하였다. 이 때 지금까지 태자와 함께 같은 숲 속에서 고행해 왔던 출가자들은 태자가 타락했다고 여기고서 그를 버리고 딴 곳으로 떠나버렸다.

그리하여 이 세상 천지에 태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조용히 나무 밑에 단정히 앉아 목숨을 걸고 최후의 사유에 들어갔다. “피가 마르고 살이 찢기고 뼈가 썩을지언정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나는 이 자리를 뜨지 않으리라.”라고 태자는 굳게 결심하였다.

그 날 태자의 마음 속에서는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다. 흐트러진 마음, 들뜬 마음, 검은 마음의 그림

석가모니 부처님

자, 추한 생각의 모습 이런 온갖 것들이 악마의 군대처럼 총공세를 펼치며 공격해왔다. 태자는 마음의 구석구석에서까지 그것들을 찾아내어서 갈가리 찢어 버렸다. 그야말로 피가 튀고 살이 벗겨지며 뼈가 부수어지는 악전고투였다.

그러나 그 싸움도 끝이 나고 동틀 무렵 새벽의 명성을 쳐다봤을 때 태자의 마음은 찬란히 빛났다. 깨달음을 열어 부처가 된 것이다. 그것은 태자가 35세가 되던 해의 12월 8일 아침에 일어난 일이었다.

6. 이때부터 태자는 붓다, 무상각자, 여래, 석가모니, 석존, 세존 등의 여러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세존은 먼저 6년 동안 한마음으로 고행하며 지냈던 다섯 사람의 출가자들에게 도를 설하고자 그들이 사는 바라나시의 프리가다바(녹야원)로 갔다. 그들은 처음에는 세존을 피하려고 했으나, 가르침을 들은 뒤에는 석존을 믿는 최초의 제자가 되었다. 또 라자그리하(왕사성)에 들어가서 빔비사라 왕을 교화하여 그곳을 근거지로 삼아 열심히 가르침을 펼쳤다.

사람들은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찾고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구하듯이 세존에게로 모여 들었다. 큰 제자인 샬리푸트라(사리불)와 마우드갈야야나(목건련)를 비롯한 2000 여명의 제자들은 세존을 우러르며 그에게 귀의하였다.

아들이 출가할까 걱정하며 애써 말려 왔고 그러다 결국 아들이 출가하자 이로 인해 쓰디쓴 괴로움을 맛본 아버지 숲도다나 왕과 그를 길러주신 양모인 마하프라자파티, 태자비인 야쇼다라를 비롯한 석가족의 사람들도 모두 세존에게 귀의하여 제자가 되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

7. 이렇게 전도의 여행을 계속하시기 45 년, 세존은 80 세를 맞이하셨다. 라자그리하로부터 슈라바스티(사위성)로 가는 도중에 바이살리에서 병이 드신 석존은 “석달 뒤에는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다. 그리고 전법의 여행을 계속하여 파바에 이르셨을 때 대장장이 춘다가 공양한 음식물에 체하여 병은 더욱 악화되었지만 아픔을 참으시며 쿠시나가라로 들어가셨다.

세존은 성 밖의 사라나무 숲 속으로 가셔서 커다란 사라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 사이에 누우셨다. 세존은 간곡하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일깨우시며 최후의 순간까지 가르침을 설하

석가모니 부처님

셨다. 그리고 세간의 대도사인 부처로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치신 뒤에 고요히 열반에 드셨다.

8. 쿠시나가라의 사람들은 세존이 열반에 드신 것을 비통해 하며 아난다의 지시에 따라서 법도에 맞게 세존의 유해를 화장 하였다.

이 때에 마가다국왕 아자타샤트루를 비롯한 8 대국의 왕들은 서로 세존의 유골을 나누어 줄 것을 바랐으나 쿠시나가라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였다. 유해를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지자 현자 드로나가 재치있게 유골을 팔등분하여 8 대국에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 밖에 유해의 단지와 화장한 재를 받아간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에 봉안하였으므로 이 세상에는 부처님의 10 대탑이 세워지게 되었다.

## 제 2 절 최후의 가르침

1. 세존은 쿠시나가라의 교외 사라나무 숲 속에서 최후의 가르침을 설하였다.

“제자들이여! 그대들은 각자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야 한다. 남을 의지해서는 안된다. 이 법을 등불로 삼고 의지처로 삼아야 한다. 다른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아서 안된다.

자신의 몸을 관찰하여 얼마나 더러운가 깊이 깨달아서 몸을 탐하지 말며 괴로움과 즐거움이 모두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여 집착하지 말며,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해서 그 속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생각하여 그것들에 미혹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면 모든 괴로움을 끊을 수가 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와 같이 가르침을 지킨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진실한 제자이다.”

2. “제자들이여! 지금까지 그대들에게 설한 나의 가르침을 늘 떠올리고 늘 생각하고 늘 닦아서 저버려서는 안된다. 만약에 가르침대로 행하면 늘 행복에 넘칠 것이다.

가르침의 요점은 마음을 닦는 데 있다. 그러므로 탐욕을 억제하여 스스로를 이기고자 노력해야만 된다. 탐욕을 멈추고, 화를 내지 않으며, 악을 멀리하고, 늘 덧없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석가모니 부처님

만일, 마음이 사악함에 이끌려 탐욕에 사로잡히려고 한다면 이것을 억누르고 다스려라. 마음에 이끌리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

마음은 사람을 부처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짐승으로 만들기도 한다. 미혹하여서 귀신이 되거나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은 모두가 이 마음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바른 길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제자들이여! 그대들은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 화합하고 존경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다투지 말라. 물과 젓처럼 화합하라. 물과 기름처럼 상극해서는 안된다.

모두 함께 나의 가르침을 지키고 함께 배우고 함께 닦으며 서로 노력하여 도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거나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며, 깨달음의 뜻을 따고 도의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제자들이여! 나는 스스로 이 도를 깨달아 그대들을 위하여 가르침을 설하였다. 그대들은 이것을 지켜서 매사에 이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를 마주하고 있어도 나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요, 나와 함께 있어도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이다. 또 이 가르침대로 행한다면 비록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와 함께 있는 자이다.”

4. “제자들이여! 나의 종말은 이미 가까워졌다. 이별도 멀지 않다. 그러나 부질없이 슬퍼 말라. 세상은 무상하니 태어나서 죽지 않는 자는 없다. 지금 내 몸이 낡은 수레처럼 부서지는 것도 이 무상의 도리를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부질없이 슬퍼하지 말 것이며, 이 무상의 도리를 알아서 인간 세상의 진실한 모습에 눈을 뜨지 않으면 안된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는 것은 무리한 바람이다.

번뇌라는 적은 항상 그대들의 약점을 엿보며 그대를 쓰러 뜨리려고 하고 있다. 만일 그대들의 방에 독사가 있다면 그 독사를 내쫓지 않고는 마음 놓고 그 방에서 잘 수는 없을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번뇌의 적을 쫓아버려야 한다. 번뇌의 독사를 내쫓아야 한다. 그대들은 삼가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

5. “제자들이여! 지금은 최후의 시간이다. 그러나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육신은 부모로부터 생겨나 음식으로 유지되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병들고 상처 나고 부서지는 것이다.

육신이 부처의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깨달음이다. 육체는 여기서 멀해도 깨달음은 영원히 법과 도에 살아 있다. 그러므로 나의 육신을 보는 자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르침을 아는 자만이 나를 본다.

내가 죽은 뒤에는 내가 남겨놓은 법이 그대들의 스승이다. 나를 섬기듯 이 법을 잘 지키고 소중히 지녀야 한다.

제자들이여! 나는 이 인생의 후반 45 년 동안 설해야 할 것은 모두 다 설했으며 해야 할 일은 다 하였다. 나에게에는 이제 아무런 비밀도 없다. 안도 없고 밖도 없고 모두 다 완전히 설해 버렸다. 제자들이여! 이제야말로 나의 최후의 시간이 다가 왔다.

석가모니 부처님

나는 지금부터 열반에 들 것이다. 이것이 나의 최후의 가르침이다.”

## 제 2 장 영원한 부처님

### 제 1 절 자비와 서원

1. 부처님의 마음은 대자대비하시다. 대자심은 온갖 수단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하려는 마음이고, 대비심은 다른 사람과 함께 앓고 함께 괴로워하는 마음이다.

마치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처럼 잠깐 동안이라도 버리는 일이 없이 지키고 키우고 구해내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다. “너의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이고,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며 잠시도 버리는 일이 없다.

부처님의 대비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생기고, 이 대비를 느낀 자에게는 믿는 마음이 생기며, 믿는 마음에 의하여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어머니임을 자각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느껴서 자식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부처님의 마음도 모른 채 그 무지로부

터 애착을 일으켜 괴로워하고, 번뇌에 휘감긴 채 괴로워한다. 죄업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며 미혹의 이 산 저 산을 힘겹게 타고 오른다.

2. 부처님의 자비가 오직 이번 한 생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온 것이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며 이렇게 미혹을 거듭해 온 태초부터 지금까지 부처님의 자비는 이어오고 있다.

부처님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가장 친밀한 모습을 나타내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그들을 구제한다.

석가족의 태자로 태어나서, 출가하여 고행을 하고, 도를 깨치고 가르침을 설하고 죽음을 나타내 보였다.

사람들의 미혹은 한이 없으므로 부처님의 일도 한이 없고,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깊어 바닥이 없으므로 부처님의 자비에도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수행을 처음 시작하면서 네 가지 큰 서원

## 영원한 부처님

을 세웠다. (1)은 모든 사람들을 건지기를 서원하고 (2)는 모든 번뇌를 끊을 것을 서원하고 (3)은 모든 가르침을 배울 것을 서원하고 (4)는 위 없는 깨달음을 얻기를 서원하였다. 이 네 가지 서원을 바탕으로 부처님은 수행하셨다. 부처님의 수행의 근본이 바로 이 서원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온 마음이 그대로 사람들을 구하려는 대자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부처님은 부처가 되기 위하여 살아있는 목숨을 빼앗지 않는 수행을 하셨고, 그 공덕으로 사람들이 장수하기를 원하였다.

부처님은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는 수행을 하셨고, 그 공덕으로 사람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였다.

부처님은 문란한 짓을 하지 않는 수행을 하셨고, 그 공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고, 또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기를 원하셨다.

부처님은 부처가 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수행을 하셨고, 그 공덕으로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음의 고요

함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

남을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수행을 닦으시며 사람들이 항상 화합하고 서로 도를 말하기를 원하셨다.

또 거친 말을 멀리하는 수행을 닦아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갈팡질팡하며 떠들어대는 일이 없기를 원하셨다.

번드레하게 꾸미는 말을 떠나는 수행을 닦아 사람들에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원하셨다.

또 부처님은 부처가 되기 위하여 탐욕을 떠나는 수행을 닦고 그 공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이 없어지기를 원하셨다.

증오하는 마음을 떠나는 수행을 하여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이 넘치기를 원하셨다.

어리석음을 떠나는 수행을 닦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인과의 도리를 무시하는 그릇된 생각이 없어지기를 원하셨다.

영원한 부처님

이와 같이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였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셨다. 부처님은 마치 부모와 같이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그들이 어서 미혹의 바다를 건너가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 제2절 구원과 그 수단

1. 깨달음의 언덕에 서있는 부처님은 미혹의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그들의 귀에는 쉽게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스스로 미혹의 바다로 뛰어들어가 그들을 구원할 온갖 수단을 강구하셨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리라. 어떤 마을에 장자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집에 불이 났다. 때마침 외출했다가 돌아온 장자는 너무나 놀라서 어린 자식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놀이에 정신이 팔려서 불 난 지도 모르고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 아버지는 어린 자식들을 향하여 “얘들아! 모두 나오너라. 어서 도망쳐라.”라고 소리쳤으나 아이들은 아버지의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아이들의 안부를 걱정한 아버지는 피를 내어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여기 재미있는 장남감이 있다. 어서 나와 받아라.” 어

린 아이들은 장난감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 불 난 집에서 뛰어나왔다. 그렇게 해서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화택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집이 타고 있는 것을 모르고 타 죽을 지도 모를 공포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비심으로 한없는 여러 수단을 써서 사람들을 구원한다.

2.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리라. “옛날 어떤 장자에게 외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이 아들이 집을 나가 이리 저리 방랑하다 급기야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느라 고향을 떠나 온갖 곳을 수소문 하였지만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몇 십 년이 흘러 이제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아들이 때마침 아버지가 살고 있는 마을로 떠돌아 왔다.

아들은 제 아버지도 몰라본 채 웅장한 저택을 보고 질려 있었다. 한눈에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머슴을

영원한 부처님

보내서 방랑하는 아들을 데려 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들은 혹시나 속임수가 있을까 의심하며 겁에 질려 오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다시 한 번 머슴을 아들 옆으로 보내어 이렇게 넌지시 이르라고 하였다. 저 부잣집에 품삯을 두둑하게 받을 만한 일이 있다. 아들은 그 말에 솔깃해져 집으로 왔고 머슴이 되어 품삯을 받으며 일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자기 집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들의 지위를 점차로 끌어 올려서 마침내 금은재보가 들어있는 창고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그래도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몰라 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반듯하게 성숙한 아들의 모습에 기뻐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자기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수많은 친척과 친지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 아들이요. 이제부터 나의 모든 재산은 전부 이 사람의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의 고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나는

아버지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이 모든 재산까지도 내 것이 될 줄이야.”

여기서 말하는 장자란 부처님을 말한다. 자신이 누군지 모르던 아들은 중생을 말한다. 외아들에 향하는 아버지의 사랑처럼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을 자식으로 여기며 가르치고 안내하고 깨달음의 보물을 주어 그들을 부유하게 해준다.

3. 모든 사람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부처님의 대비는 오직 한 가지 맛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성질이 다르니 그들을 구원할 수단에도 상위가 있다. 내리는 비는 한 가지 맛이나 그 비를 맞는 초목에 따라 다른 혜택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다.

4. 아버이는 자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앓는 아이가 있으면 아버이의 마음은 유독 그 애에게만 쏠린다.

부처님의 대비도 그와 같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향해 지나 특히 죄가 무거운 자, 어리석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에게

영원한 부처님

더욱 큰 자비를 베푼다.

그리고 태양이 동쪽 하늘에 떠올라 어둠을 없애고 만물을 키우는 것과 같이 부처님은 사람들 사이에 나서서 악을 멸하고 선을 키우며 지혜의 빛을 비추어 무지의 어둠을 없애고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부처님은 자의 아버지며 비의 어머니다. 부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자비의 마음으로부터 오로지 사람들을 위해서만 힘쓰신다. 그들은 부처님의 자비없이 구원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불자로서 부처님이 베푸는 구원의 수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 제3절 영원한 부처님

1.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었다고 믿고 있으나, 실은 성불한 이후 지금까지 한없는 시일이 경과하였다.

끝없는 시간 동안 부처님은 항상 이 세상에 계셨으며, 영원한 부처님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성질을 다 아시고 모든 수단을 다

하여 구원하셨다.

부처님이 설하신 영원의 법 가운데는 거짓은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세상사를 있는 그대로 밝게 아시며,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세상사를 있는 그대로 다 안다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세상사란 진실한 것인 줄 알고 보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인 줄 알고 보면 거짓도 아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세상사를 알 수가 없다.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이 세상사가 진실하다거나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좋다거나 나쁘다고도 말하지 않고 오직 있는 그대로 가르치신다.

부처님이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성질과 행위, 신심에 따라서 선근을 심어야 한다.”

2. 부처님은 오직 말씀만으로 가르치시지 않고 몸으로도 가르치신다. 부처님은 본래 수명에 끝이 없으나 탐욕으로 만족할

영원한 부처님

줄 모르는 사람들을 눈뜨게 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서 죽음을 나타내셨다.

비유하면 많은 자식을 둔 의사가 타국으로 여행을 떠난 사이에 아이들이 독을 마시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자. 집으로 돌아온 의사는 이 광경을 보고 놀라 약을 먹일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 제정신을 잃지 않고 있는 아이는 그 약을 먹고 병을 고칠 수가 있었으나, 이미 정신과 마음이 혼미해진 아이는 약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인 의사는 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한 최후수단을 써야 한다고 결심하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또다시 긴 여행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이미 늙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여기에 남기고 간 약을 마시고 각자 건강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그는 다시 먼 여행에 나섰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그 죽음을 알리게 했다.

자식들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깊이 슬퍼하며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에게는 의지할 곳이 없어졌다.”라며 한탄하였

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하여 비통과 절망 속에서 그 약을 먹고 회복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아버지인 의사의 거짓말을 탓해야 할 것인가. 부처님도 또한 이 아버지와 같은 것이다. 부처님은 욕망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다.

## 제 3 장 부처의 모습과 공덕

### 제 1 절 세 가지 모습

1. 모습이나 형상으로 부처를 구해서는 안 된다. 모습이나 형상은 참된 부처가 아니다. 참된 부처는 깨달음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는 자가 참된 부처를 본다.

세상에서 훌륭한 불상을 보고 부처님을 봤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지한 눈의 탓이다. 부처의 참된 모습은 세상 사람들로서는 볼 수가 없다. 아무리 훌륭히 묘사하여도 부처님을 알 수는 없고, 어떠한 말로써도 부처님의 모습을 다 말할 수 없다.

참 모습이라고는 하나 실은 모습이 있는 것은 부처님이 아니다. 부처님에게는 모습이 없다. 그러면서도 마음대로 묘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명확히 보고 그러면서도 그 모습에 얽매이지 않으면 자재로운 힘을 얻어 부처님을 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2. 부처님의 몸은 깨달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상주하면서 깨어지는 일이 없다. 음식물에 의하여 유지되는 육신이 아니라 지혜로 이루어진 금강의 몸이므로 두려움도 없고 병도 없는 영원불멸의 것이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깨달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부처님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깨달음이 지혜의 빛으로 나타나 이 빛이 사람을 깨우치고 불국토에 태어나게 한다.

이 도리를 깨달은 자는 불자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지켜서 후세에 전한다. 그야말로 부처님의 힘보다 더 불가사의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3. 부처님에게는 세 가지 몸이 갖추어져 있다. 하나는 법신, 둘째는 보신, 셋째는 응신이다.

법신이란 법 그 자체를 몸으로 삼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도리와 그것을 깨달는 지혜가 하나가 된 진리의 몸을 말한다.

## 부처의 모습과 공덕

법 그 자체가 부처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에게는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다. 색깔도 형체도 없으므로 오는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다. 오는 곳도 가는 곳도 없는 까닭에 충만하지 않는 곳이 없고 허공처럼 만물 위에 널리 퍼져 있다.

사람이 생각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잊어 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기뻐할 때에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게으를 때에 떠나가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이란 존재는 사람의 마음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초월하여 계신다.

부처님의 몸은 모든 세계에 가득 찼으며 모든 곳에 퍼져 있어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부처님과는 관계없이 영원히 머무신다.

4. 보신이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가 융합한 형체가 없는 법신불로서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형상을 나타내서 원을 일으키고 행을 쌓아 이름을 나타내어 가르치고 인도하는 부처님이다.

자비가 육신의 정수이신 이 부처님은 대비를 바탕으로 여러 방편으로 한없는 사람들을 건지고, 마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처럼 사람들의 번뇌라는 장작을 태우고, 먼지를 날리는 바람처럼 사람들의 번뇌라는 티끌을 날려 버린다.

응신불은 부처의 구원을 온전히 다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성품에 따라 이 세상에 모습을 나타낸 분이다. 태어나서 출가하고 성도하여 여러 방편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며, 병들고 죽는 모습을 보여 사람들을 일깨우는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몸은 원래 하나의 법신이나 사람들의 성질이 다른 까닭에 그 몸을 다양하게 나타내신다. 비록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 마음과 행위와 그 능력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부처님의 모습을 보겠지만 부처님은 오직 하나의 진리를 보일 뿐이다.

부처님의 몸은 셋으로 나누어 지는데, 그것은 오직 한 가지의 일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 한 가지의 일이란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는 일이다.

한없이 수승한 몸으로써 모든 경계에 나타난다 해도 그 몸은

부처의 모습과 공덕

부처님이 아니다. 부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깨달음을 몸체로 하여 모든 것들에 넘쳐서 진리를 보는 사람 앞에 부처님은 항상 나타난다.

## 제2절 부처님과의 만남

1. 부처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은 대단히 드문 일이다. 부처님은 지금 이 세계에 있어서 깨달음을 열고 법을 설하며 의심의 그물을 끊어 애욕의 뿌리를 뽑고 악의 근원을 막아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이 세상을 다니신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을 을 경배하는 일보다 더 훌륭한 선은 없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는 법을 설하여 사람들에게 참된 복리를 베풀기 위함이다.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부처님은 이 고난의 세계에 나타나신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은 바른 이치가 사라졌고 그릇된 견해가 만연하고 사람들은 탐욕을 그치지 못하여 심신 모두가 타락하여 수명이 짧아졌다. 이런 세상에서 법을 펴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오직 대비심만으로 부처님은 이 곤란을 이겨 나가신다.

2.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착한 벗이다. 무거운 번뇌를 짊어지고 괴로워하는 자가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은 그를 대신하여 그 무거운 짐을 진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참된 스승이다. 어리석고 미혹하여 괴로워하는 자가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은 지혜의 빛으로 그 어둠을 없애주신다.

송아지가 잠시라도 어미 소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한 번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자는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다. 가르침을 듣는 것은 항상 즐겁기 때문이다.

3. 달이 구름에 가려지면 사람들은 달이 졌다고 말하고, 달이 구름 밖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달이 떴다고 말한다. 그러나 달은 항상 하늘에 머물렀으며 출몰하는 일이 없다. 부처님도 그와 같이 상주하여 생멸하지 않는 것인데 오직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태어나고 죽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다.

사람들은 달이 찬다든가 달이 기운다고 말하지만 달은 항상 차 있고 불어나거나 이지러지는 일이 없다. 부처님도 그와같이 상주하며 생멸하지 않는 것인데 오직 사람들의 보는 바에 따라서 생멸이 있을 뿐이다.

## 부처의 모습과 공덕

달은 또 온 세상 만물에 모습을 드러낸다. 거리와 마을, 산과 강, 연못과 물 향아리 속에도 모습을 드러내고, 풀잎사귀에 매달린 이슬에도 드러낸다. 나그네가 백리 길을 가든 천리 길을 가든 달은 항상 그를 따른다. 달 그것 자체에는 변함이 없으나 달을 보는 사람에 따라 달은 달라진다. 부처님도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숫자 만큼 많은 모습을 보이시지만 부처님은 상주하여 변하는 일이 없다.

4.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일들은 무턱대고 아무런 인연도 없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을 구하는데 좋은 때가 오면 이 세상에도 나타나고 그 인연이 다하면 이 세상에서 숨어 버린다.

부처님에게 생멸의 상은 있으나 실제로 생멸하는 일은 없다. 이 도리를 알아서 부처님이 보이는 생멸과 모든 것이 변하는 것에 미혹되지 말며, 참된 깨달음을 열어서 위없는 지혜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님은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 그 자체라고 이미 설하였다. 육신은 그야말로 그릇이며 그 속에 깨달음의 담아야지만 부처님

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육신에 얽매어 부처님이 열반하셨다고 슬퍼하는 자는 진정한 부처님을 볼 수가 없다.

원래 모든 것의 참 모습은 생멸, 오고 감, 선악의 차별을 떠난 공이며 평등한 것이다.

그 차별은 보는 자의 치우친 생각에서 생기는 것이며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도 실은 나타나거나 숨는 일이 없다.

### 제3절 훌륭한 공덕

1. 부처님은 훌륭한 다섯 가지의 덕을 갖추셨기에 존경을 받는다. 바른 행동, 바른 견해, 바른 지혜, 깨달음의 도를 밝게 설하는 것, 사람들이 가르침대로 잘 닦도록 이끄는 일이 다섯 가지 덕이다.

또 부처님에게는 뛰어난 능력이 여덟가지 있다. (1)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베푼다. (2)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있어서 곧 이익이 된다. (3)세상의 선악과 옳고 그름을 바르게 가르친다. (4)바른 도를 가르쳐서 깨달음에 들게 한다. (5)어떤 사람이든지 하나의 도로 인도한다. (6)부처님에게는 오만심이 없다. (7)말한대로 실행하며, 실행한대로 말한다. (8)미혹없이

부처의 모습과 공덕

서원을 채워 완전히 행을 이룬다.

또 부처님은 선정에 들어 고요함과 평화를 얻어, 모든 사람들에게 자애로운 마음, 어여빠 여기는 마음을 갖고, 마음의 모든 오욕을 씻어버려 평등하게 사랑하시며 청정한 자만이 갖는 기쁨을 갖는다.

2.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다. 아이를 낳고 열여섯 달 동안 부모는 아기의 소리에 맞춰 갓난아이처럼 말하다가 제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시어 천천히 말을 가르치는 것처럼 부처님도 사람들의 말에 따라 가르침을 설하고, 그들의 소망에 따라서 모습을 드러내어 사람들이 평안하고 흔들림이 없는 경지에서 살도록 한다.

또 부처님은 한 가지의 말로써 가르침을 설하나, 사람들은 모두 그 성품에 따라서 그것을 듣고, 부처님은 지금 나를 위해 가르침을 설했다고 기뻐한다.

부처님의 경지는 미혹한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해 있고,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으나, 굳이 그 경지를 나타내려면 비유를 들

어서 말할 수 밖에 없다.

겐지스강물은 항상 거북이나 물고기, 말이나 코끼리들에 의해 더럽혀지지만 언제나 맑기만 하다. 부처님도 이 강처럼 외도나 이단의 물고기들이 다투어 와서 어지럽히지만 조금도 생각의 흐트러짐이 없이 청정하기만 하다.

3.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도리를 알고, 치우쳐진 양극단을 떠나 중도에 서서, 또 모든 문자나 말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알며, 한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알고 있다.

고요한 큰 바다에 넓은 하늘의 별들이 고스란히 제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 그 밖의 모든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일체지자(一切智者)라고 말한다.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의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 빛을 주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의미와 성쇠인과의 도리를 명백하게 알려준다. 그야말로 부처님의 지혜에 의해서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알 수 있다.

## 부처의 모습과 공덕

4. 부처님은 오직 부처로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악마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여자의 모습으로 되고, 신들의 모습으로 되며, 국왕이나 대신으로도 되고, 또는 창부의 집이나 도박장에도 나타난다.

질병이 들 때 병자에게는 의사가 되어 약을 주고 가르침을 설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관용과 자비의 바른 가르침을 설하여 재난을 벗어나게 하고, 상주의 생각에 얽매어 있는 자에게는 무상의 도리를 설하고, 자아와 자만에 구애되어 있는 자에게는 무아를 설하며, 세속적 기쁨의 그물에 걸려있는 자에게는 세상의 쓰러린 광경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부처님의 활동은 이와같이 세상 만물 위에 나타나나, 그것은 모두가 법신의 구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한 없는 생명, 한 없는 빛의 구원도 그 근원은 법신불이다.

5. 이 세상은 불난 집과 같아 평은 하지 않다. 사람들은 어리석음의 어둠에 싸여 성냄과 시기, 질투 등 모든 번뇌에 미쳐 있다. 갓난아기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하듯이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의 자비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처님은 실로 성자들 가운데 존귀한 성자이며, 이 세상의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의 아들들이다. 그들은 그저 이 세상의 즐거움에만 빠져 그 재난을 내다보는 지혜를 갖고 있지 않다. 이 세상은 괴로움에 가득찬 무서운 곳이며, 늙음과 질병과 죽음의 불길이 그치지 않고 타오른다.

그런데 부처님은 미혹의 세계라는 화택을 떠나 정적인 숲속에 머물며, 불쌍히 여기는 대자비심으로 “지금 이 세계는 내 것이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 모두가 내 자식이다. 오직 나만이 그들을 한없는 고뇌와 어둠에서 건져줄 수 있다.”라고 말한다.

부처님은 실로 위대한 진리의 왕이시니 바라는 대로 가르침을 설한다. 부처님은 오직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났다. 사람들을 괴로움으로 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부처님은 법을 설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망에 끌려 들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마음에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은 다시는 미혹한 세계로 물러나지 않는 경지에 놓이기 될 것이다. “내 가르침은 오

## 부처의 모습과 공덕

직 믿음으로써만 들어갈 수 있다. 즉 부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가르침에 따르게 되는 것이지 자신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